

인천도시공사 최우수 평가에 이어 내실 강화



1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2 이승우 사장이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꽃 나눔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꽃을 나눠주고 있다. 3 인천도시공사사 전경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이는 2019년 '다'등급보다 2단계 상향된 등급이며 창립 이후 최고 성적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국 249개 광역·기초단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 20여개 세부 지표에 대한 달성도를 검증해 가~마 5개 등급의 평가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단순 기관방문 평가가 아닌 권역별 집체심사와 기관별 현장 심사를 병행한 종합 평가를 진행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의 평가로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검증받는 평가였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재난 안전 관련 사망률 및 재해율,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전 분야에서 임직원이 노력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은 부분도 눈여겨볼 점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동반 상생 플랫폼 구축 및 공공 구매 상담 회를 개최하고 청년 사회적 경제 창업실 운영지원과 해드림 봉사단 운영 등 공공성 증진을 통한 사회 가치 실현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또 시정 및 기관 핵심사업, 경영혁신 등 경영성과에 대해 시장이 CEO를 평가하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에서도 최고 점수 94.32점을 획득해 기관의 우수성 인정에 이어 최고 리더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영평가와 더불어 창립 이래 최고의 결과를 달성했다.

공사는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한 이래 2014년부터 흑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9년에는 창립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는 금융부채 2조3천205억원 감축 등 행정안전부 부채목표비율 300%를 준수하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공사는 경영환경 개선 및 지속적 강화 노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이 시민 삶의 질 개선까지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이익과 공공복리의 선순환을 이뤄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사장은 “늘 애정으로 공사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밤낮으로 인천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인천시민께서 주신 관심에 대한 보답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더욱 치열한 고민과 삶의 터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의 새로운 탄생을 이뤄 시민의 도시, 대한민국의 더 큰 인천을 위한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정의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